

2026
RESEARCH
FORUM

하나TV
하나증권

2차전지 Neutral | Analyst 김현수



전쟁과 평화, 에너지 안보와 배터리

하나증권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동하는 국제 질서

- 미, 국무장관 및 각종 외교 문서 통해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unipolar moment) 에서 다극 세계(multipolar world)로의 전환 언급
- 미국의 입장 : “다른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익 증진 목표로 노력하는 동안 미국만 국제질서 유지를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목표로 추구해 왔는데, 이러한 ‘단극 질서’ 상태는 갑작스럽게 냉전이 끝남에 따라 발생한 예외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국제질서 아니다”
- 비정상적인 ‘단극 질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미중려 등이 각자의 국익 증진 우선시하는 국제적 상황, “다극 세계”로의 전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국제 질서



자료: G/E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정상이라는 미국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자료: Burning Archive

패권 전쟁 가속화

- 미국, 중국, 러시아의 패권 전쟁 본격화되는 신냉전 시대
- 이미 전쟁 중인 러시아, 대만 전쟁 준비하는 중국,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교체한 미국
- 빌 애크먼, “국제 질서는 이미 세계 3차대전의 초입 단계 진입” (2014년 크림반도 침공, 2022년 러우전쟁, 2027년 ?)

미국, 국방부의 명칭을 Department of Defense에서 Department of War로 변경



안보자산의 가치 높아지는 시기

- 국제 질서의 재편과 패권 경쟁 가속화되는 시기일 수록 안보자산의 가치 증대, 정치 외교 및 경제 분야 모두에서 안보자산의 기회 확대
- 안보자산의 정의 : 안보자산의 대상은 시대마다 바뀌지만 본질은 동일, “그 대상을 통제할 때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산“
- 국가 공동체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자원, National Security Asset, 광의의 전략물자
- 19세기 이후 일상 및 전쟁 수행 위해 철강과 에너지자원(석탄, 석유) 중요해지며 안보자산化

1945년 알타회담 이후 비밀리에 군함회담을 가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드 국왕



자료: Getty Images

안보자산의 중요성 드러내는 상징적 이벤트 다수 발생

- 패권 경쟁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정치적·전략적인 요소가 산업 지형 재편에 영향(트럼프의 인텔 지분 투자)
- 전략 물자 지위를 획득한 산업들에 대한 미국의 지분투자 확대 : 희토류 ('25. 7월), 반도체 ('25. 8월), 광물 ('25. 9월), 양자('25. 10월)
- JP Morgan CEO Jamie Dimon, 2025년 10월, 향후 1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한 산업에 1.5조달러 투자 발표
-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과 상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한다”
- JP Morgan이 선정한 향후 10년 주요 투자 4대 분야 : 안보 및 항공우주, 에너지 저장, 공급망 및 첨단 제조, 미래 기술

미국의 인텔 지분 투자



자료: Reason Magazine

미국의 패권 유지 기반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직접 지분 투자 증가



자료: Bloomberg, Moomoo

자본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데이터”

- 미국 정부와 JP Mogan의 투자가 가리키고 있는 키워드는 데이터 - 안보자산으로서 데이터가 다뤄지는 시대
- 일상 생활 영위 및 전쟁 수행 위해 과거에는 철강과 석유 필요했다면, 이제는 같은 목적 위해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연산, 추론 필요
- 데이터 안보자산化의 상징 : Palantir - 빅 데이터 가공 기업, 전쟁의 영역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여 의사결정 효율화
- Palantir CEO Alex Karp, 국가 안보를 사명으로 기업 시작, 흩어진 정보를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전쟁 시 의사결정의 핵심 빠르게 도출

팔란티어 주가 추이



자료: Quantivise, 하나증권

데이터 사용 영역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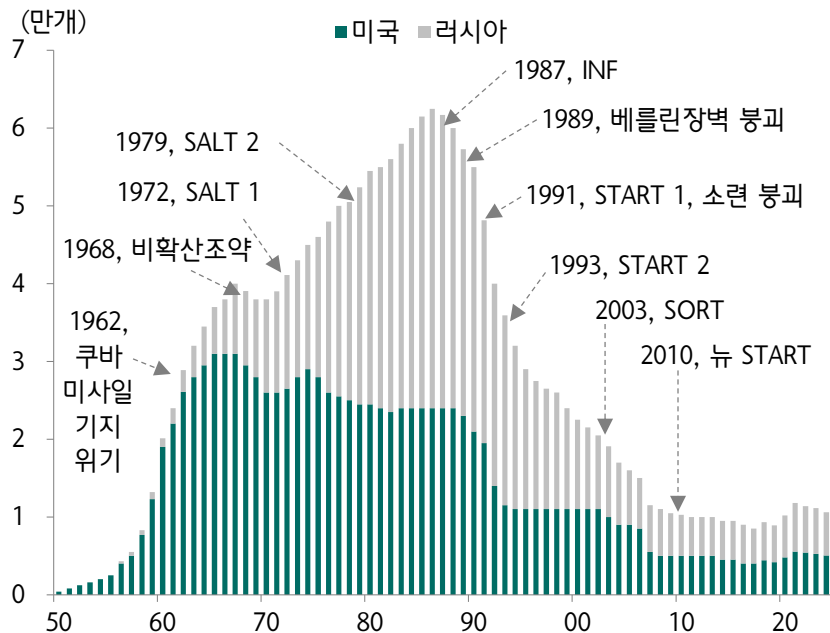


자료: Palantir Document

20c 냉전시대의 핵, 21c 신냉전시대의 데이터

- 20세기 냉전시대, 전쟁과 국가 안전보장 위해 더 많은 핵무기 확보 경쟁
- 21세기는 데이터 확보 경쟁, 더 많은 데이터 분석과 연산을 위해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으로 구체화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Open AI-Oracle-Softbank의 향후 5년간 700조원 투자)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독려하는 것도 이 때문
- 데이터는 핵심 안보이익 그 자체이자 안보자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중요, 배터리는 왜?

팔란티어 추가 추이



자료: FAS, 하나증권

데이터 사용 영역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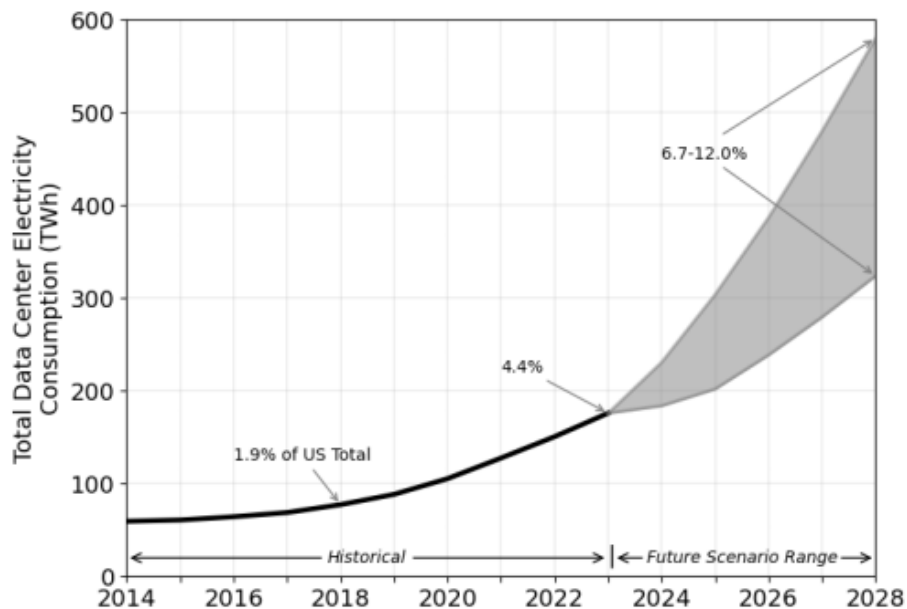


자료: The Associated Press

1) Grid(전력망) 부족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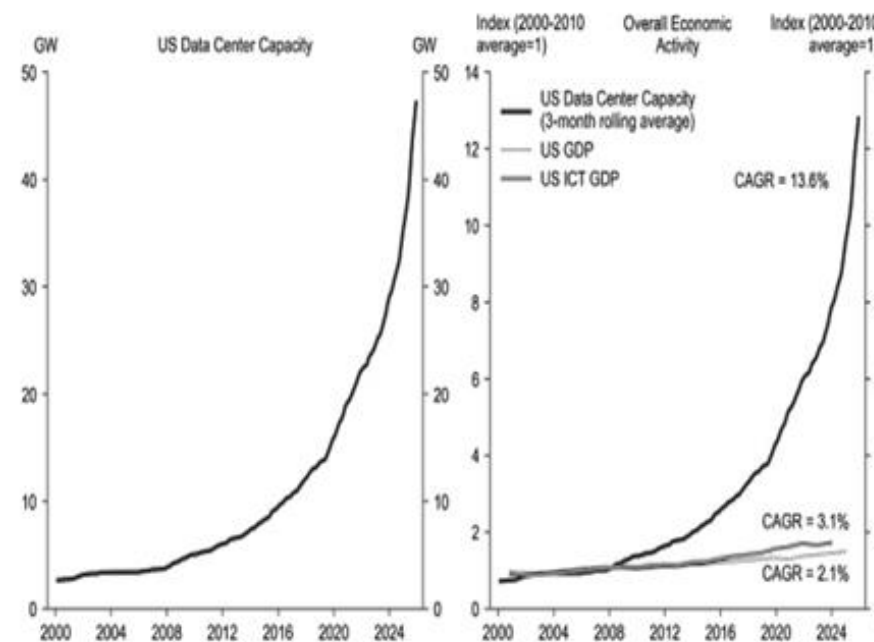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에너지 요구, 미국 전체 전기 에너지 소비량 중 데이터센터 비중 2018년 1.9%, 2028년 최대 12% 전망
- Open AI CEO 샘올트만, “1GW의 전기 새로 구하기 너무 어렵다”, “전기는 새로운 원유와 같다”
- 글로벌 4대 사모펀드 Apollo CEO, “AI에 부족한 것은 칩이 아니라 전기”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추이 및 전망(2014~2028)



자료: LBNL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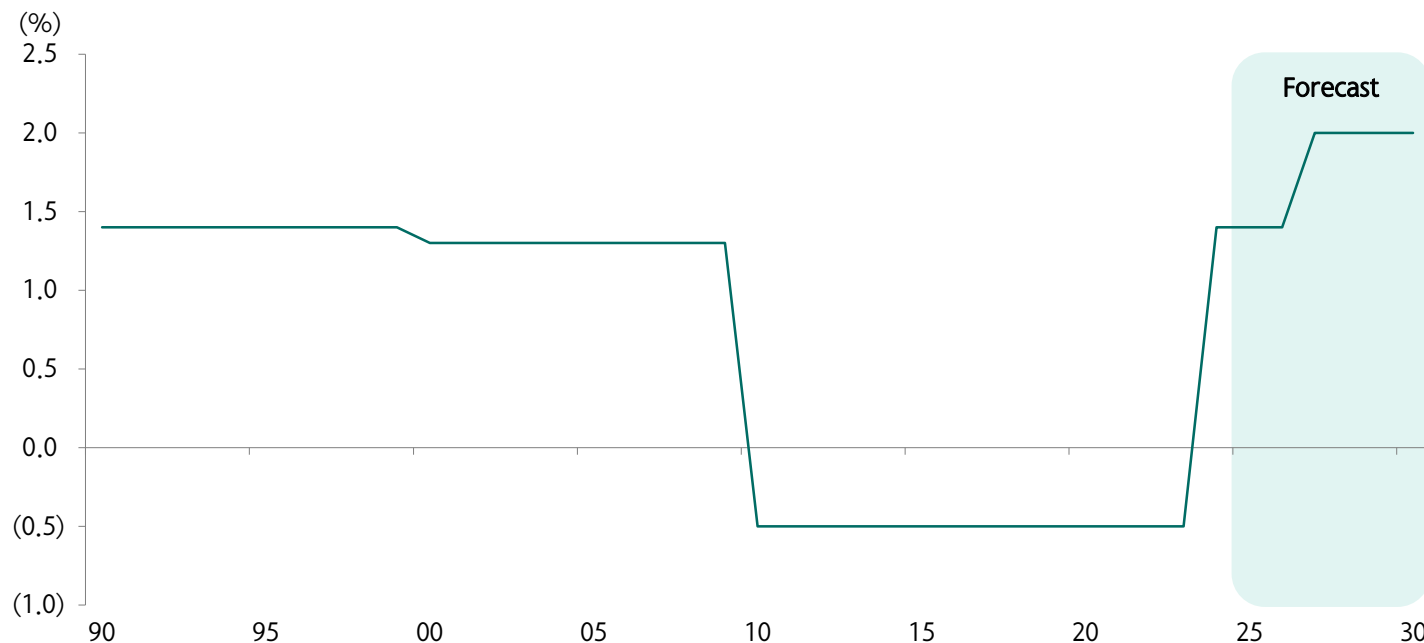


자료: Aterio, Goldman Sachs

1) Grid(전력망) 부족 - 유럽

- 유럽 연간 전력 수요 320GW(에너지 소비량 기준 연간 2,800TWh($320\text{GW} \times 8,760\text{시간}$) 발생
- 2025년 9월 기준 유럽 주요 전력망 시스템 운영자들이 접수한 DC 연결 요청 대기 수요 약 280GW, 연간 수요의 90% 해당
- 최근 10개월 사이 약 +60% 증가한 수치, 데이터센터로 인해 유럽 전력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유럽 전체 전력 수요는 효율성 증대로 지난 10년간 지속 감소 추이였으나, 데이터센터로 인해 향후 10년간 성장세 지속 전망

유럽 전력 수요 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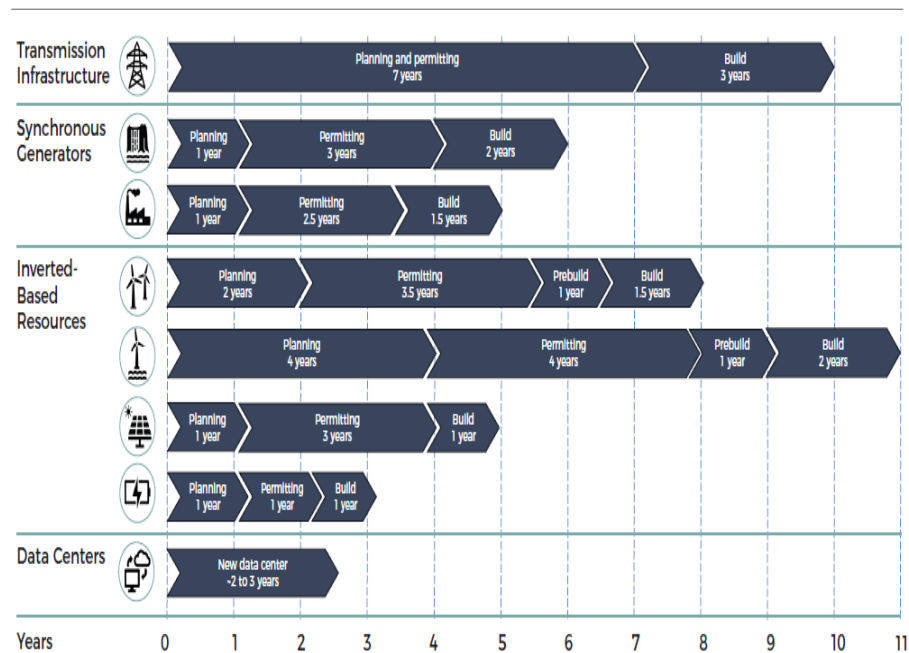


자료: Goldman Sachs, 하나증권

1) Grid 논리 – (1) 시간

- 데이터센터 공사 시 전력망 구축까지 최대 7년 소요
- 美 에너지부 장관, “국가 전력망 투자는 대통령의 목표와 일치”, FERC(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서한 보내 규제 완화 의사 전달
- 美 에너지부, 데이터센터 전력망 심사 6년 → 60일로 단축 검토

데이터센터와 전력인프라 준공 시간 비교



자료: GridLab, 하나증권

주요 지역별 신규 데이터센터 그리드 연결 대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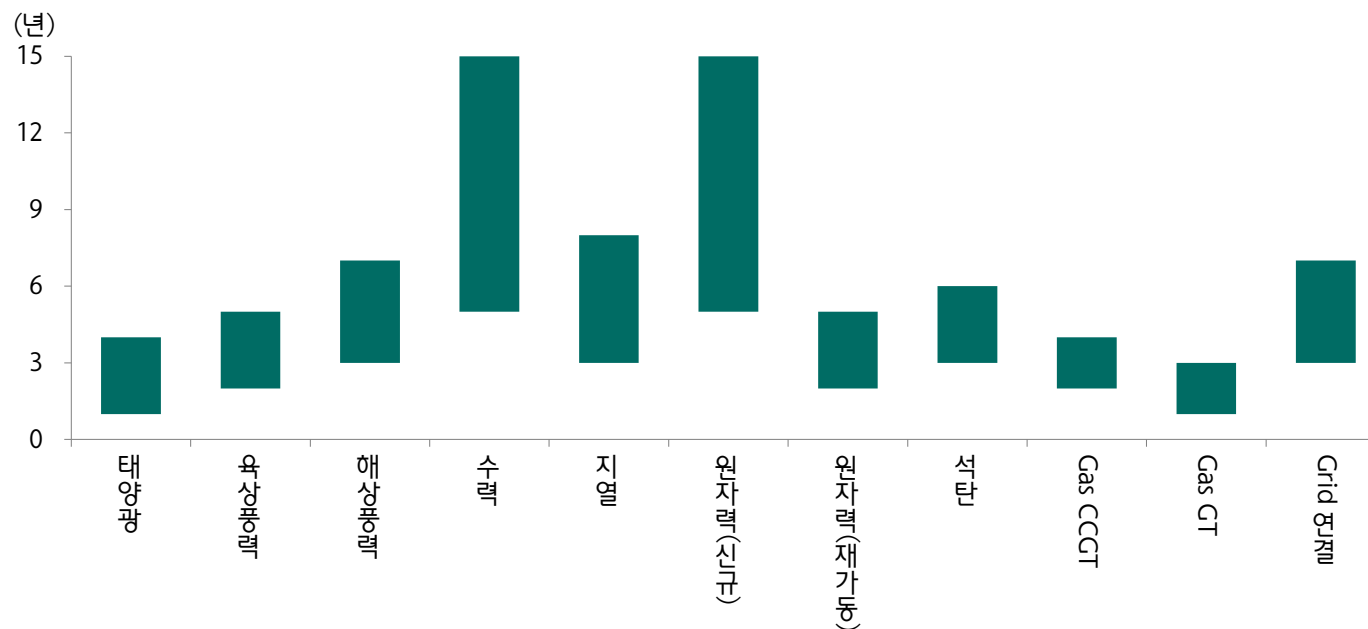
지역	평균 대기 시간	지역	평균 대기 시간
미국	1~3년	간토 (일본)	5년 이상
북부 버지니아 (미국)	최대 7년	말레이시아	3년 이하
캘리포니아 (미국)	3년	퀸즐랜드 (호주)	2년 이상
독일	최대 7년	이탈리아	3년 이하
영국	5~7년	스페인	3~5년
네덜란드	최대 10년	더블린(아일랜드)	2030년까지 중단

자료: IEA, 하나증권

1) Grid 논리 – (1) 시간

- 전력원별 건설기간 비교 시 태양광 우위(최대 4년 vs 원자력 신규 최대 15년)
- 물론, 장기적으로 원자력 및 가스복합발전 설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장 빠른 전력 공급 위해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지속 전망
- LCOE(균등화 발전 단가)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강점 있으므로 전기 비용 부담 낮추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전망

전력원별 건설기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1) Grid 논리 – (2) On-site power : Bring Your Own Power

- On-site power(전력이 소비되는 현장이나 시설에서 직접 전기 생산, 현장 발전 또는 분산형 발전) 사례 증가
- Bring Your Own Power의 시대, 미국의 천연가스 활용한 가스 복합 발전 역시 건설기간 짧아 설치 사례 증가
- 미국 텍사스 등 주요지역 LNG 많이 생산되므로 근거리에 데이터센터 설립 : xAI 콜로서스(일런머스크)도 근거리 LNG 활용
- 전기 에너지를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 위해 소형 ESS 필요

데이터센터향 전력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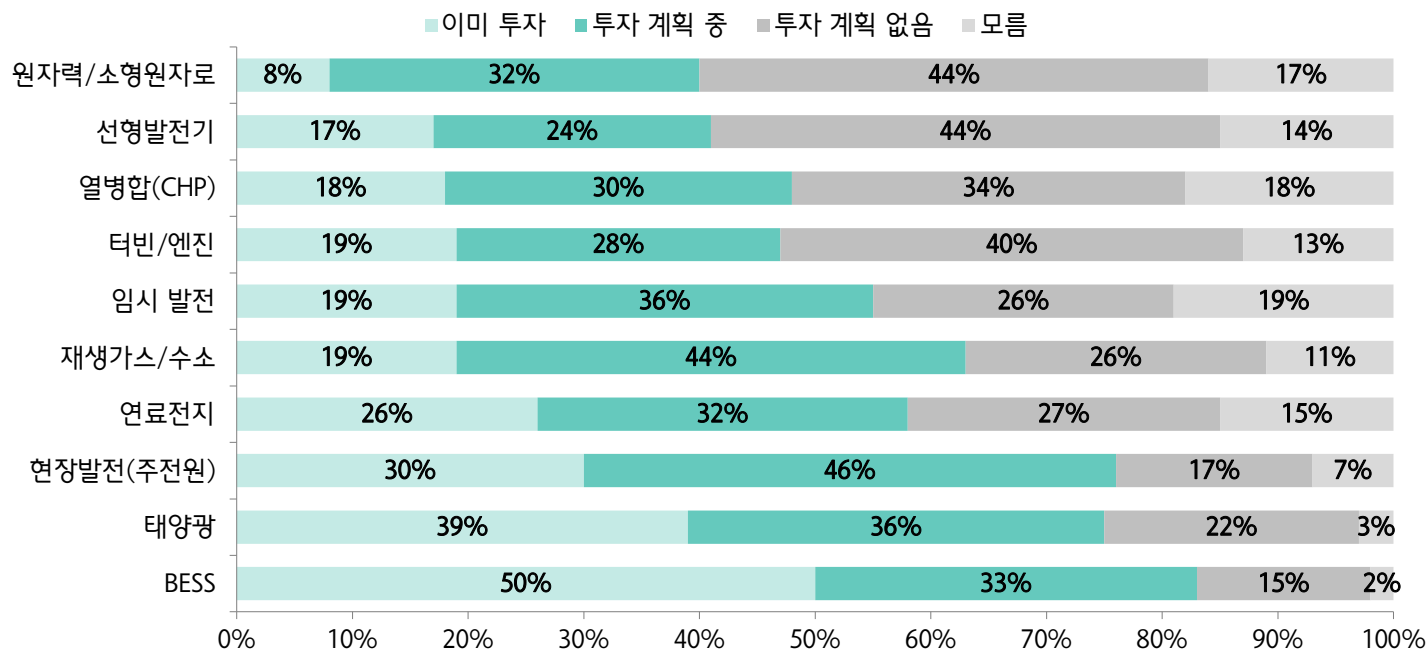


자료:Crain's Chicago Business

1) Grid 논리 : On-site 발전 계획자 중 약 83%가 BESS 이미 투자했거나 계획 중

- 빠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해 On-site Power 발전량 지속 증가 전망
- 이 과정에서 건설 기간 짧은 재생에너지 + ESS 설치 수요 증가 전망
- 가스 복합 화력 및 소형 원자로 활동하더라도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력의 에너지 저장 수요 증가 전망

On-site 발전원별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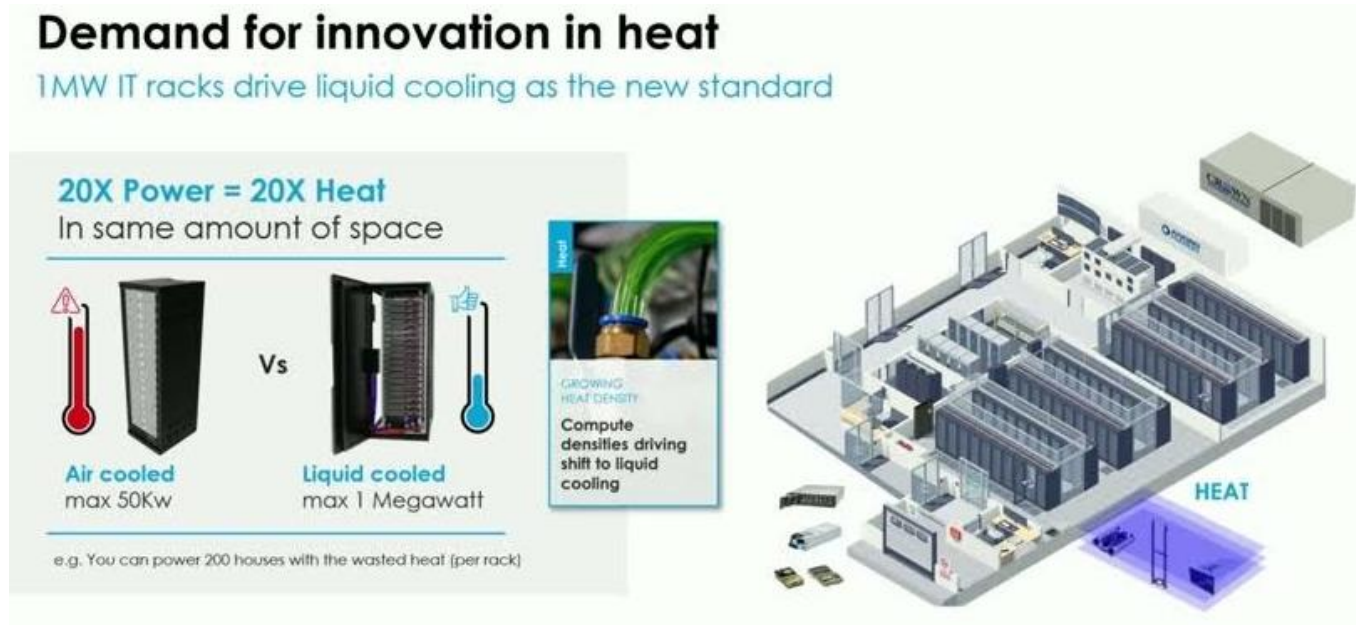


자료:AlphaStruxure, 하나증권

2) GPU 부하 증가 논리 – (1) 서버랙의 소비 전력 증가 및 이에 따른 부하 평탄화 필요성 증대

- NVIDIA, 2025년 10월 OCP(Open Compute Project) Summit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 전력 생태계 구축 로드맵 발표
- “AI 서버 랙의 전력 소비는 현재 약 120kW에서 500kW이며, 2020년대 말에는 1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학습용 GPU 랙(rack)은 GPU 수천 개가 병렬로 연결된 고밀도 장비, 기존 일반 서버랙(10~20 kW)보다 10~50배 이상 높은 전력 소모)
- NVIDIA의 GPU 세대가 Hopper에서 Blackwell 세대로 넘어오며 GPU 전력밀도 3.4배↑, 랙당 1 MW 수준 도달
- 2026년 Rubin으로 넘어가며 랙당 총전력 최대 1 MW(= 1,000 kW) 수준이 일반화될 전망, MW 단위 단일 랙 출현하면서 전력 수요 급증

AI 서버 랙당 전력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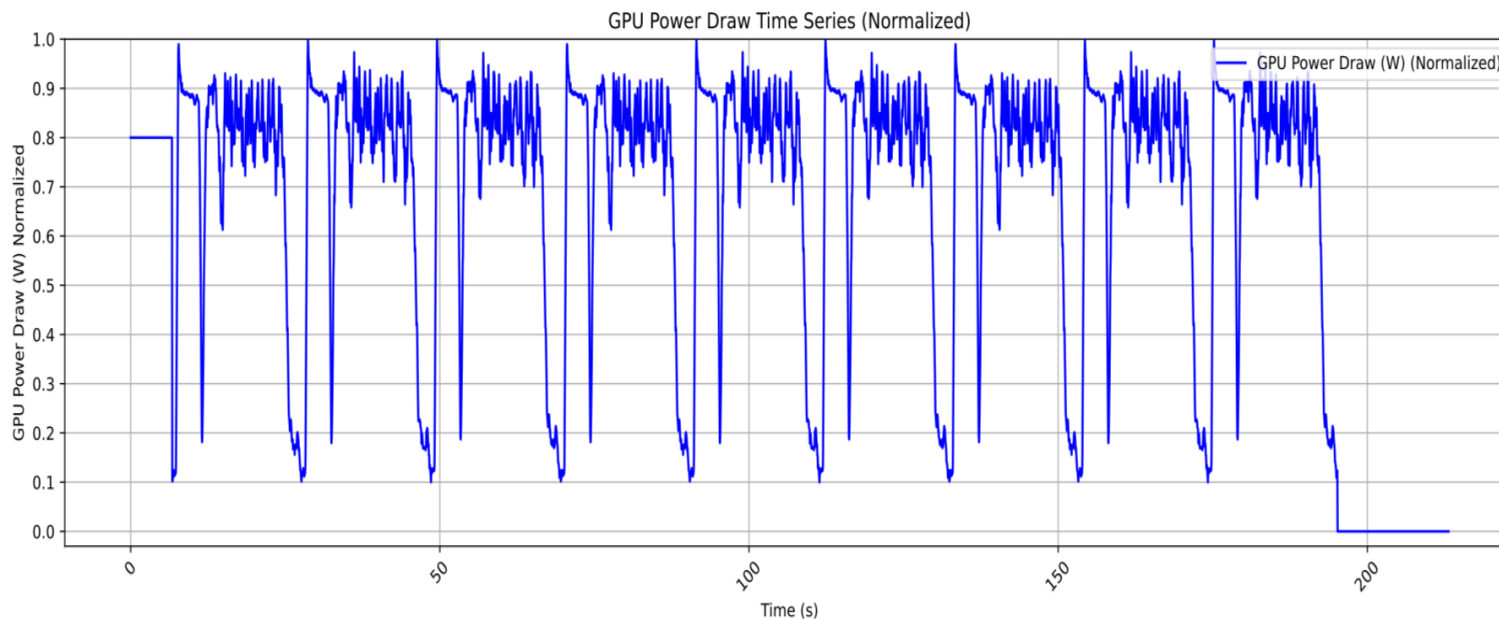


자료: OCP(Open Compute Project) Global Summit

2) GPU 부하 증가 논리 – (1) 서버랙의 소비 전력 증가 및 이에 따른 부하 평탄화 필요성 증대

- 전력 변동성(Volatility) 증대 : 수천 GPU가 동기화되는 상황에서 “30% ↔ 100%” 부하가 밀리초 단위로 출렁임
- 이로 인해 그리드 불안정 초래 → 부하 평탄화 위한 에너지 저장 수요 발생,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하 크기와 부하 변동성이 수요 결정
- 예) 1 GW급 데이터센터에서 부하 변동 폭이 ± 100 MW이고 변동 지속 시간이 30분이라면,
→ 약 $100 \text{ MW} \times 0.5 \text{ h} = 50 \text{ MWh}$ 급 ESS 필요

데이터센터의 전력 변동성 확대



자료: Moonlight

2) GPU 부하 증가 논리 – (2) 직류(DC) 전환

- 현재 시스템 : 먼저 외부 전력의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정류기), 안정화한 뒤 다시 교류로 되돌려서(인버터) 서버로 송출
- UPS 내부에서 DC로 바꿨는데도 다시 AC로 바꾸는 이유는 현재는 서버 랙이 'AC 입력'을 받도록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
- 즉, 외부 AC 망을 통해 전류가 들어오면 여러 전환 거치며 변환 손실 발생. 전력의 10~15%가 변환 손실로 버려짐

데이터센터 내 전류 변경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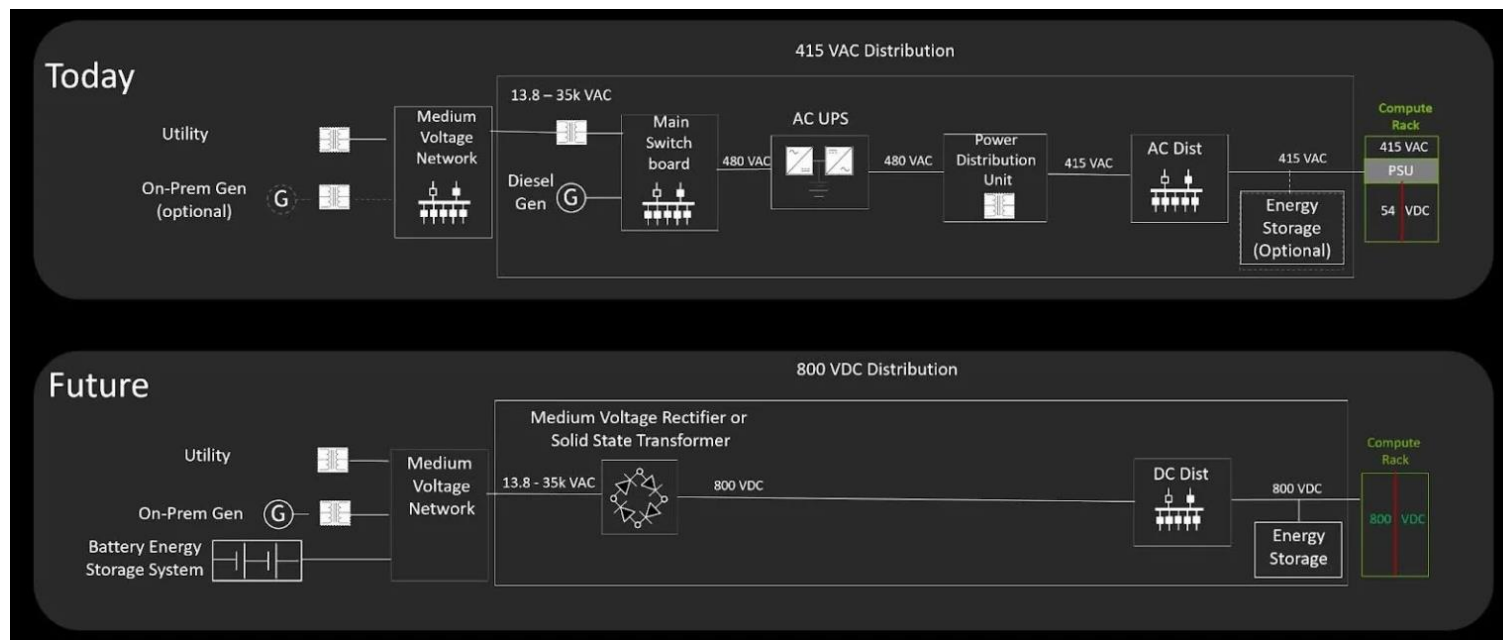
구간	비유	의미
AC 고압 → AC 저압	비행기 큰 공항 착륙 (거대 전력망 → 내부 전원 레벨 낮춤)	변압기
UPS (AC↔DC↔AC)	환승공항에서 보안·짐검사 (전압 품질 확인·안정화)	정류기 + 인버터
랙 PSU(Power Supply Unit) (AC→DC)	현지 입국심사 (서버 내부가 DC로만 작동하므로 변환)	최종 DC 변환

자료: 하나증권

2) GPU 부하 증가 논리 – (2) 직류(DC) 전환

- DC Bus (= 백본)가 데이터센터의 “공용 전력선” 역할, ESS가 이 DC Bus에 직접 병렬 연결되므로 전력망과 서버 사이의 메인 루프 위에서 실시간 전류 이동, 결과적으로 이제 ESS는 이제 평상시에도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전력원으로 변화
- 더 이상 “정전 나면 작동하는 UPS”가 아니라 “항상 돌아가는 전력조절 장치(active buffer)”로 진화, ESS 설치율과 운용률 상승

NVIDIA 데이터센터 전력 체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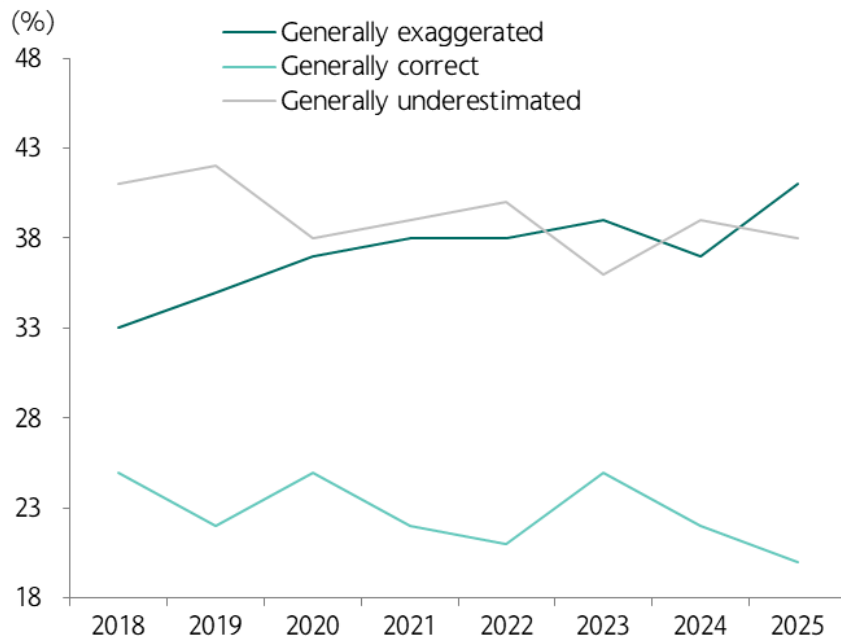


자료: NVIDIA

3) ESS의 성장 담론이 탈탄소 논리에서 안보 논리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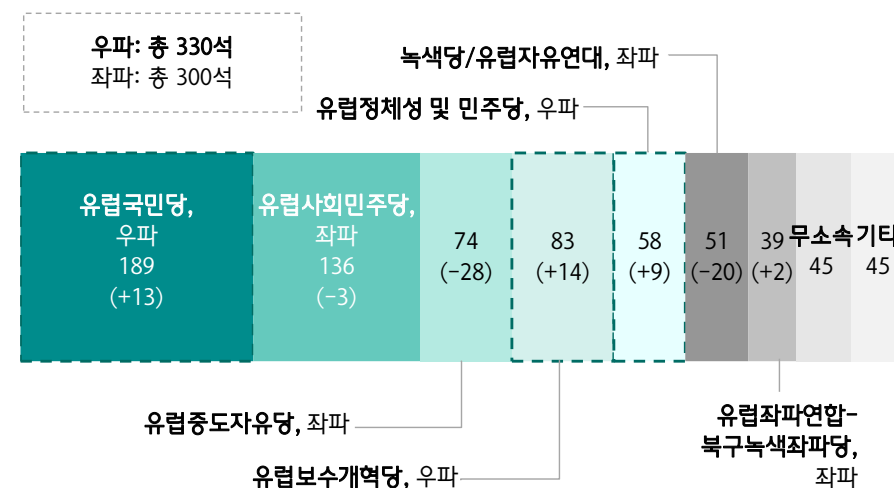
- 탄소 배출을 줄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류의 당위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익 추구 행위로서 ESS 수요 증가
- 만약 탈탄소 담론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서구권의 Green Backlash(친환경정책 반대 기조) 고려할 때, 배터리 성장 동력 추가 약화 불가피
- 트럼프-밴스 행정부의 Green Scam(녹색 사기) 프레임 계속해서 힘을 얻는 상황

Americans' Views of Global Warming in the News



자료: Gallup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나증권

3) ESS의 성장 담론이 탈탄소 논리에서 안보 논리로 확장

- 과거 재생에너지 + ESS 결합 상품의 성장 논리는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IT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Net-zero 추구한다는 것
- IT 기업들의 탈탄소 및 RE100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는 시장논리 자체만으로도 ESS 수요 증가 전망 가능

주요 테크기업의 데이터센터 CAPA와 Net-zero 타겟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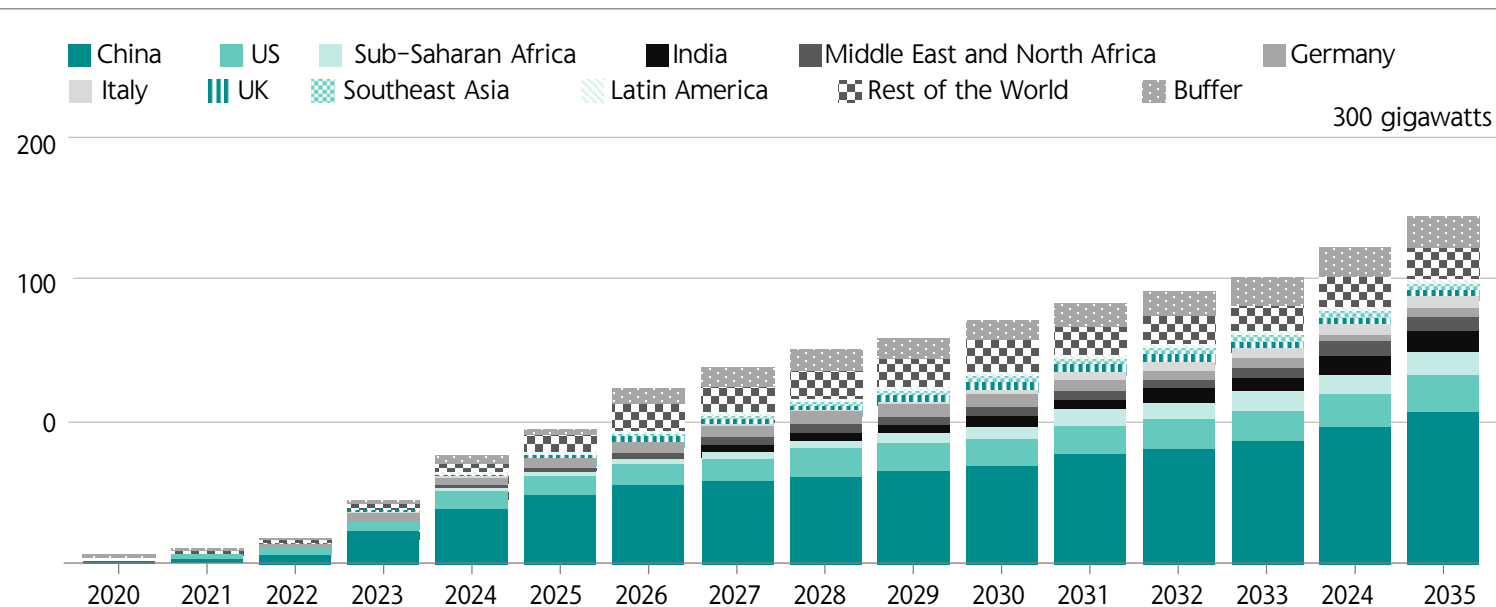
기업	데이터센터 CAPA 추정(MW)	Net-zero 타겟 연도	Corporate clean, green or renewable electricity target
Meta	9,780	2030	100% renewable since 2020
Google	8,960	2030	100% renewable since 2017
Amazon	7,660	2040	100% renewable since 2023
Microsoft	6,970	2030	100% renewable by 2025
Digital Realty	2,740	-	-
Equinix	1,850	2030	100% renewable by 2030
Tencent	1,760	2030	100% green by 2030
Alibaba Cloud	1,660	2030	100% clean by 2030
Aligned	1,290	2040	100% renewable since 2020
Huawei	1,260	2040	-
Apple	1,240	2040	100% renewable since 2018
Vantage	1,180	2030	-
CyrusOne	1,120	2030	100% carbon-free since 2030
NTT Data	1,110	2035	100% renewable since 2030
QTS Data Centers	1,060	2030	-
Baidu	980	2030	-
GDS	980	2030	100% renewable by 2030
Chindata	920	2040	100% renewable by 2040
Switch	660	2021	100% renewable since 2016
Princeton Digital	620	2030	100% green by 2030

자료: IEA, 하나증권

4) ESS 시장 규모 전망

- Bloomberg, 글로벌 ESS 시장 2025년 94GW(247GWh)로 YoY +35% 성장 전망, Rho motion Data 기준 9월 누적 설치량 188GWh
- 평균 Duration이 2.6시간 수준이므로 상기한 데이터는 양 조사기관 모두 유사한 수준의 시장 규모 의미
- 향후 Duration 4시간 제품이 일반화되고 최근에는 8시간 장주기 제품 출시되면서 향후 설치 용량 더욱 늘어날 전망
- 실제 BNEF는 2035년 기준 전력 수요 220GW에 972GWh의 ESS 배터리 연간 신규 설치 수요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Duration이 4.4시간 까지 늘어남을 가정하고 있는 것

글로벌 ESS 신규 설치 용량 전망



자료: BNEF

배터리가 안보자산化 되면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교란 및 방어 전술 구체화

- 안보자산 부족 국가는 해당 자산 보유 국가에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안보자산 보유 국가는 경제적/정치적 종속 관계 구축하며 패권국 지위 강화
- 배터리와 구성물질이 데이터 중요성으로 인해 안보자산으로서 지위 강화, 패권국들의 배터리 공급망 교란 및 내재화/동맹 구축 본격화



자료: 클립아트코리아, 하나증권

중국의 공급망 교란 전략, 공격 위치에 있는 배터리 공급망 적극 활용

-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교란 본격화 : 중국의 배터리 및 소재 수출 통제, 중국 입장에서는 공격 위치에 있는 자산 적극활용
- 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품목 △배터리셀·팩 및 관련 장비 △양극재 및 관련 장비 △흑연 음극재 및 관련 장비(11월 8일부터 실시)
- 해당 품목에 대해 해외 기업이 수입을 해오려면 제품 원재료 정보가 담긴 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및 각종 질문에 답변 해야함

중국 수출 통제 품목

분야	세부 품목
배터리(셀, 팩, 장비)	에너지밀도 300Wh/kg 이상인 리튬이온배터리 셀 또는 팩 권취기, 적층기, 전해액 주입기, 열암기, 활성화 및 용량 분리 시스템, 용량 분리 캐비닛
양극재 관련 품목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 리튬 풍부한 망간계 양극재 롤러 소성로, 고속 혼합기, 샌드밀, 기류분쇄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	인조흑연 음극재 인조흑연과 천연흑연 혼합 음극재 과립화 공정 장비 흑연화 장비 공정 및 기술

자료: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공급망 내재화 본격화

- 공급망 방어해야 하는 미국,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관련 투자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
- 데이터가 안보자산화 되고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안정적인 연산을 위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반드시 필요
- JP Morgan,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위해 투자 본격화 – 미국의 공급망 내재화 추진 과정에서의 수혜 기업

JP Morgan, 향후 10년간 국가 안보 관련 산업에 1.5조달러 투자 계획

WSJ | OPINION

OPINION

COMMENTARY

Follow

Jamie Dimon: Our Investments for National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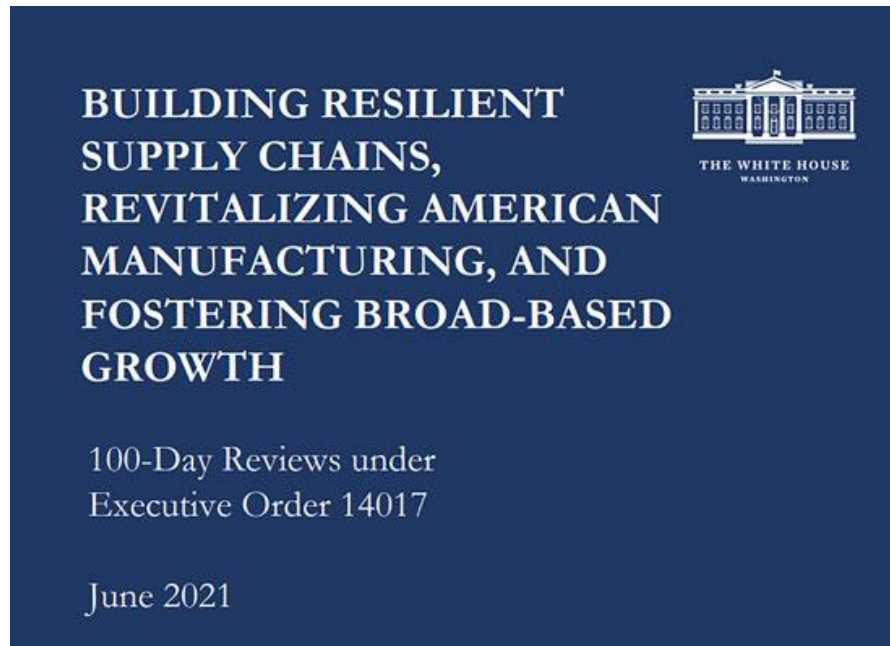
JPMorganChase plans a 10-year, \$1.5 trillion initiative to shore up America's resiliency.

자료: WSJ

배터리의 안보자산化, 가격 경쟁과 함께 에너지 안보 논리 함께 작동

- 바이든 취임 직후, COVID-19로 인한 공급망 붕괴 속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4대 산업 지정(배터리 포함) 하여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 친환경산업 투자 극도로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 조차 리튬 기업 지분투자, 친환경과 무관하게 에너지 안보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
- 배터리의 안보자산化, 가격 경쟁과 함께 에너지 안보 논리 함께 작동

2021년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4대 국가 안보 관련 산업 공급망 점검



자료: OUSD A&S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리튬 기업(LAC) 지분 투자



자료: invezz

미국의 Friend-shoring 지속

-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제조업 Re-shoring과 함께 공급망 Friend-shoring 병행, 특히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협력 강화
- 2025년 10월 20일, 미국과 호주 희토류-광물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미국 희토류 자석 제조사인 Noveon Magnetics가 호주의 Lynas Rare Earths와 제휴를 맺어 미국내 공급망 구축 중)
- 2025년 10월 28일, 일본과 희토류 협정 체결

미국-호주 희토류 및 광물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자료: 연합뉴스

호주의 핵심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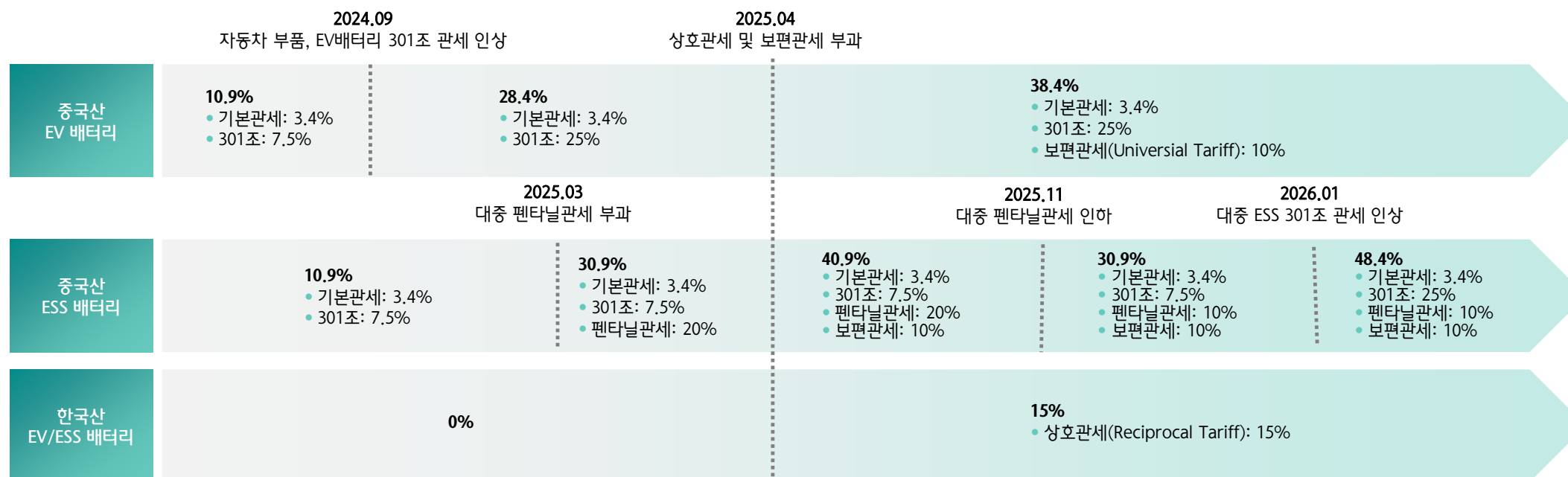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생산량	매장량	생산량	매장량	생산량	매장량	생산량	매장량
호주	55 (1)	5,700 (2)	6 (3)	1,400 (2)	160 (5)	21,000 (1)	22 (4)	4,000 (5)
세계	100	22,000	170	7,600	2,700	95,000	280	120,000

주1) 괄호 안 수치는 전 세계 순위, 주2) 생산량은 예측치
자료: U.S. Geological Survey(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나증권

미국의 대중 일괄 관세 부과로 한국 ESS 배터리 수혜

- 미국도 중국 외에 대안이 없으므로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는 2026년으로 유예되었던 상황
- 트럼프 취임 이후 대중 일괄 관세(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부과되며 미국 내 ESS 사업자들 관세 부담 크게 심화
- 2026년부터는 유예되었던 슈퍼301조의 ESS 품목관세 추가로 부과 예정

배터리 미국 관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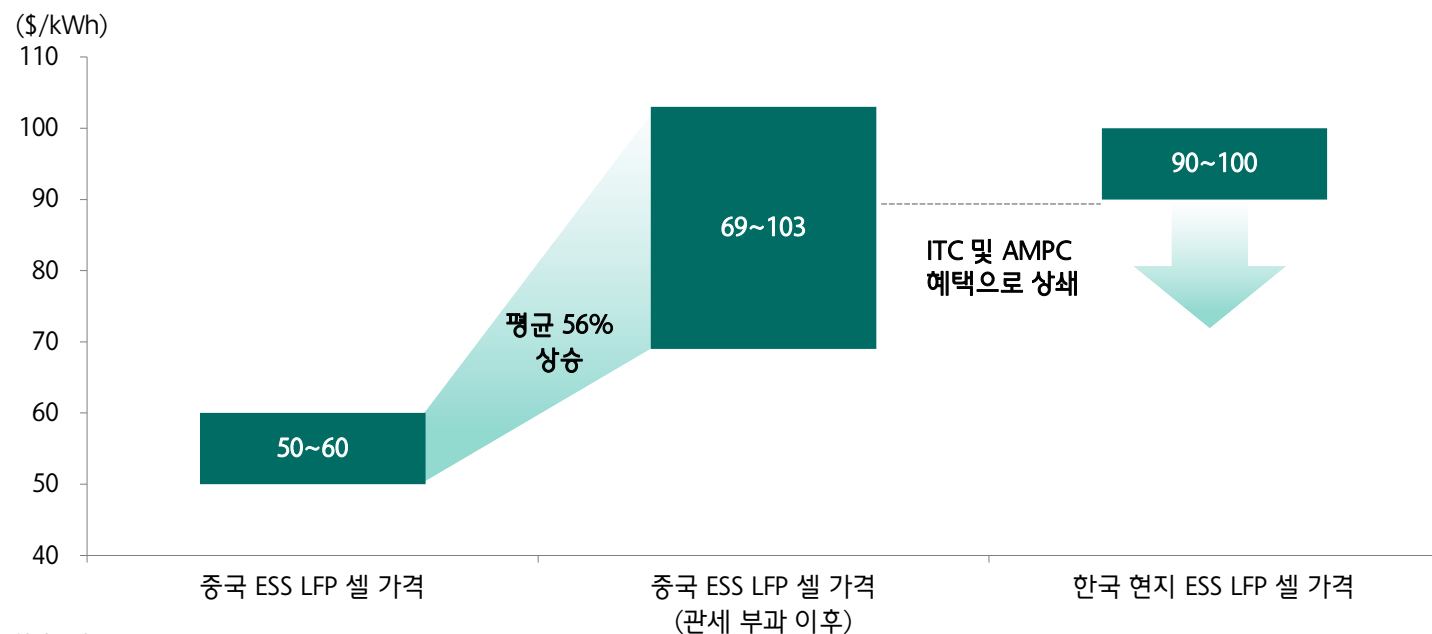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한국 ESS 배터리 가격 경쟁력 증대

- 중국 LFP 배터리의 미국 Landing price는 현재 셀 기준 kWh당 최대 60달러 수준
-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 시 kWh당 90달러대 이므로 가격 경쟁력 열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관세 모두 적용 시 가격이 중국 제품이 최대 103달러까지 상승, 이외 고객사의 ITC 혜택 등 고려하면 추가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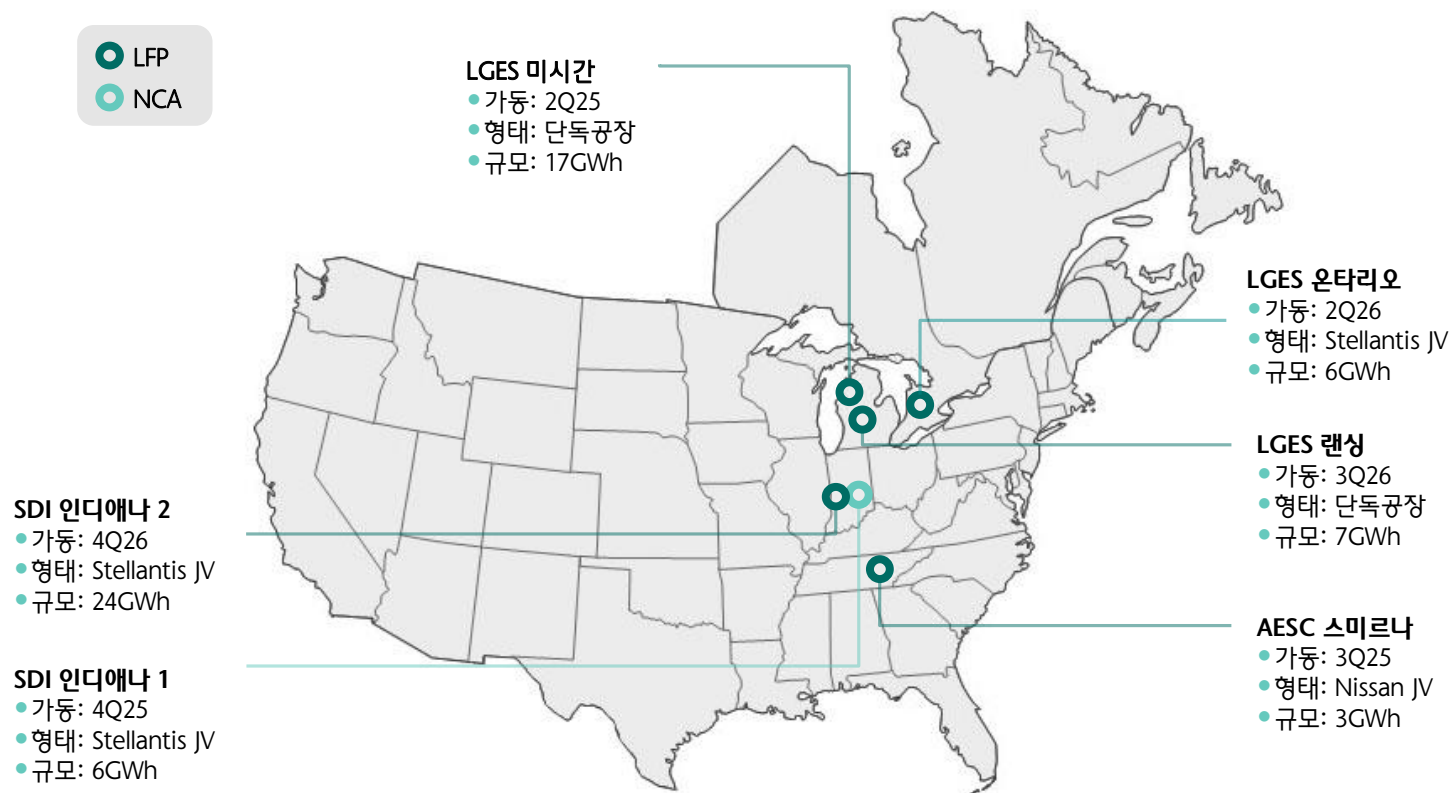
한국산 및 중국산 ESS 배터리 셀 가격 비교



자료: 하나증권

북미 ESS 현지 공장 증설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

북미 ESS 배터리 맵



- 현재 미국 내 LFP 제조 공장 전무
- LGES, 삼성SDI 증설 본격화
- LGES 현지 LFP 생산 2Q25 시작
- 삼성SDI 현지 LFP 생산 4Q26 시작

자료: 하나증권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ESS 배터리 수주 본격화

- CATL 포함 중국 기업들에게 ESS 배터리 조달 100% 의존해오던 테슬라
- 올해 대중 일괄 관세 부과로 인해 전체 관세 부담의 1/3이 에너지저장장치 분야에서 발생
- 최근 LGES로부터 ESS LFP 배터리 조달 계약 체결

2025년 7월 30일, 테슬라와 LGES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Tesla chooses LG Energy for US-made stationary storage batteries, say Korean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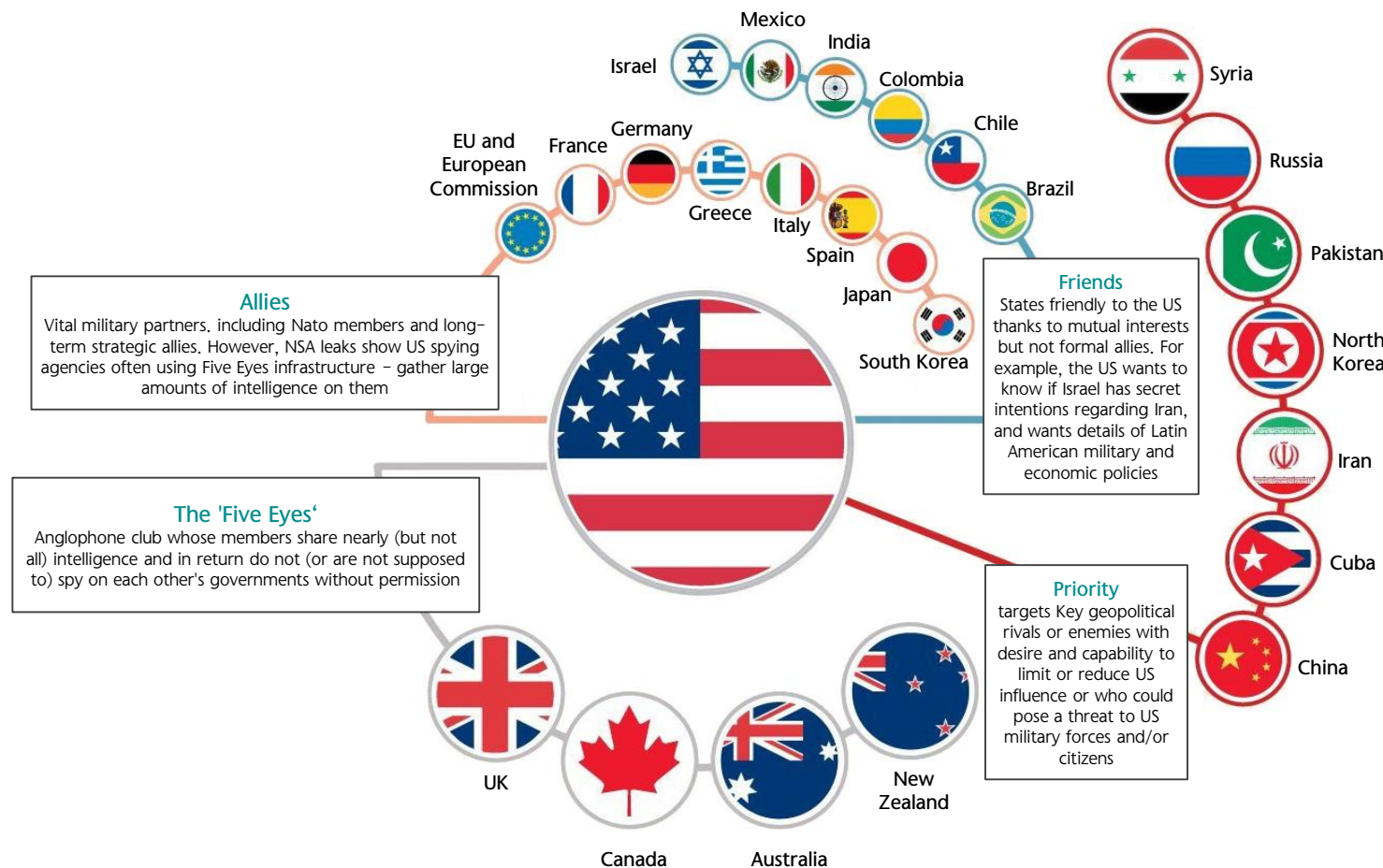


자료: PV magazine

4. 공급망 교란과 공급망 동맹

군사동맹과 배터리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 우방국 및 적대국 분류



- 안보자산을 제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본점 소재지 위치가 미국과 가까운 국가인지 여부(군사 및 외교적으로) 중요
- 미국과 핵심 안보 동맹: AUKUS 동맹
호주 광물 시장 지속 성장의 기반
- 미국과 일반 군사 동맹 맺은 국가 중 배터리 공급망 보유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

LG에너지솔루션(373220) | BUY | TP 559,000원 | CP(11월13일) 48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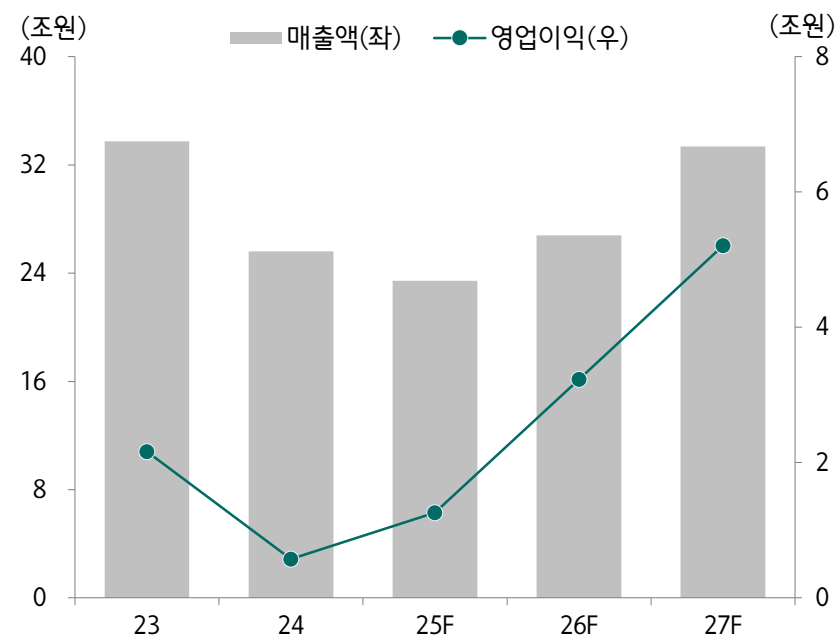
- 현재 미국 내 유일한 LFP ESS 배터리 현지 생산 기업, 이를 바탕으로 최근 테슬라향 연평균 15GWh 물량 수주, 향후 추가 가능성 상존
-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부문 연간 약 0.8조원 적자 추정, 향후 ESS 이익 26년 이후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하며 전기차 부문 부진 상쇄 가능
- 이익 정상화 및 CAPEX 대폭 축소로 인해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26년부터 플러스 전환 가능 전망

Financial Data (단위: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5,619.6	23,439.7	26,791.2	33,365.2
영업이익	575.4	1,258.0	3,229.9	5,209.6
순이익	(1,018.7)	(382.6)	1,208.7	2,816.6
증감률	적전	적지	흑전	133.0
PER	(79.93)	(290.83)	92.06	39.50
PBR	3.86	5.66	5.33	4.70
ROE	(4.93)	(1.88)	5.96	12.64
DPS	0	0	0	0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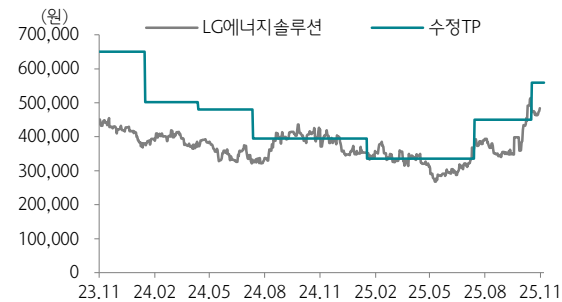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에너지솔루션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0.31	BUY	559,000		
25.7.28	BUY	450,000	-14.66%	14.22%
25.1.31	Neutral	336,000	-3.53%	-20.24%
24.10.29	Neutral	395,000	-3.37%	-12.78%
24.7.26	BUY	395,000	-3.77%	10.51%
24.4.26	BUY	480,000	-26.10%	-18.13%
24.1.29	BUY	502,000	-21.79%	-16.43%
23.10.26	BUY	650,000	-35.52%	-24.08%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11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현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현수)는 2025년 11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41%	4.59%	0.00%	100%

* 기준일: 2025년 11월 14일